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정추영, 서영숙
대구보건대학교 간호대학

Effect of the Convergenc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for Communication self efficacy,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f Nursing students

Chu-yeong Jeong, Young-Sook Seo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College of Daegu Health

요 약 본 연구는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운영하여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은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9월 5일에서 12월 13일까지이다. 연구대상자는 D시 소재의 1개 대학교 1학년 중 실험군 41명, 대조군 42명으로 총 83명이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χ^2 test 및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 실시 전후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t=15.23$, $p<.001$), 의사소통 능력($t=11.42$, $p<.001$) 및 대인관계($t=19.24$,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에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융복합, 대인관계,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develop a human relation and communication course combined with a convergenc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and examine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self efficacy,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 in nursing students. The study was designed using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data were collected between September 5 and December 13, 2016, Participants were 83 1-year nursing students in 1 College of D City, and were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 ($n=41$), or a control group ($n=42$).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d χ^2 test with the SPSS/WIN 21.0. After receiving the program, difference was observed in communication self-efficacy($t=15.23$, $p<.001$), communicative competence($t=11.42$, $p<.001$), and interpersonal relations($t=19.24$, $p<.001$) of the experimental group. It is expected that these results would be helpful for increasing communication self efficacy,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 in nursing students on human relation and communication course combined with a convergenc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Key Words : Communicative competence, Communication self-efficacy, Convergence, Interpersonal relation, Nursing students

Received 6 March 2017, Revised 26 April 2017
Accepted 20 May 2017, Published 28 May 2017
Corresponding Author: Chu-young Jeong
(College of Daegu Health)
Email: jcy0902@dhc.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전과 질병의 만성화, 소비자의 권리의식 변화 및 질병군 별 포괄수가제 등으로 인해 병원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고객의 서비스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1].

특히 병원에서 간호 인력의 비율은 약 52.5%를 차지하며, 입원 간호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한 간호를 지체 없이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간호 서비스는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2]. 즉 질 높은 소비자의 간호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간호사들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1].

이에 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학부과정을 마친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7개로 제시하였고, 간호교육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3]. 그 중에서 전문분야 간 협력관계와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의 핵심역량은 대인관계 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간호대학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인간관계 또는 의사소통 관련 교과목을 주요 교과목으로 배치하였다. 간호교육에서 전공기초과목으로 분류하여 대부분 대학에서 1학년 또는 2학년에 편성되어 있고, 이론학점으로 강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전공 간호학 과목 적용을 위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전임 교수보다 외래 교수에 의한 교과목 운영이 이루어지는 대학이 많은 실정이다[4].

한편 간호대학생은 과중한 학업과 책임감, 엄중한 규범 준수 등을 요구하는 임상실습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5],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그 원인을 의사소통 기술과 자신감 부족 등으로 나타냈다[6-8]. 이처럼 간호대학생이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갖추어야 하나 이론 중심으로 학습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은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통해 형성되므로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이론중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집단 활동과 토론, 발표, 역할극 등을 고려한 다양한 교수매체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적용하면 학습자는 습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기술과 태도를 형성할 기회가 되므로 학습효과는 높아질 것이다[4]. 또한 분과적 지식 중심의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지식 체계를 기반으로 학습자들의 실제 삶과 연계하여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9,10].

최근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의학, 과학, 윤리, 종교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11,12]. 한편 최근 간호교육에서도 융복합 수업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인지양식 등의 조사연구[13]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융복합적 교과목 설계와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는 의사소통에서 자기효능감은 치료적 관계를 성공적으로 발달시키는 촉진적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14]. 또한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아지게 되고,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게 보고되었다[14-17]. 이처럼 최근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 능력 등 관련 변인을 알아보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기존의 이론 중심 교과목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다양한 학습방법을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려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18,19].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성숙한 대인관계 형성과 이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은 미래의 전문 간호사로서 전문직 간호를 수행을 하는데 중요한 역량이므로, 간호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는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론 중심의 강의방식 보다는 간호대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용의 재편성과 수업설계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교과목 외에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대형 강

의실에서 40~60명 정도의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학습 환경의 제약과 많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대집단의 이론중심 강의, 6~7명의 소집단 활동, 토론, 발표, 개별 활동 및 역할극 등의 다양한 학습방법을 구성하고 교과목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이 실제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하고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간호대학의 교과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적, 환경적 지원과 비용의 투입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교육현장에서의 적용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기존의 강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진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과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적용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 정도를 비교하여 실제적인 훈련과 활동을 적용한 교과목 운영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의 수업설계 및 운영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운영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둘째,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의 유사 실험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한 1개 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수업설계에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반은 실험군으로 이론 중심의 강의식 수업을 진행한 반은 대조군으로 하였다. 실험효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학년의 다른 반으로 구분하여 글자 가와 나가 쓰여진 카드를 반의 대표가 무작위로 선택하도록 하여 가를 선택한 반은 실험군, 나를 선택한 반은 대조군으로 배정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80, 효과크기(d) 0.8으로 설정하여 t-test를 위한 대상자 수를 확인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28명이었다. 연구 시작 시 실험군은 42명, 대조군은 44명이었으나,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실험군 1명과 대조군 2명이 탈락하여 최종 분석 대상은 실험군 41명과 대조군 42명으로 총 83명이었다.

연구기간은 2016년 9월 5일에서 12월 13일까지였고,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방법과 과정의 일관성을 위해 사전에 연구보조원에게 설문지 작성과 수집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 모두 연구자가 교과목 운영자임을 감안할 때 연구결과의 편향성 위험을 배제하고 프로그램 참여의 자발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고려하였다.

첫째,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적용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에 의해 진행되었다. 둘째, 자료 수집은 연구보조원이 연구의 목적과 절차,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익명처리, 비밀보장을 설명하였고,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자의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프로그램 참여를 포기할 수 있음을 알리고 서면동의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군은 9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100분의 강의식 수업과 50분의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운영하였으며, 대조군에는 150분의 이론 중심의 강의식 수업으로 두 집단 모두 총 14회의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운

영하였다. 자료수집 시기는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사전조사는 1회기에 사후조사는 14회기에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한편 대조군에는 교과목 이수 후 12월 14일에서 15일 까지 2일 동안 총 8시간의 프로그램 운영을 공지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40명을 대상으로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Ayres [20]가 개발한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자신이 의도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기능력에 대한 판단을 평가하는 것이다. 총 10문항으로 7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3이었다.

2.3.2 의사소통 능력

Bienvenu [21]가 개발한 대인 의사소통 검사(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ventory: ICI)를 Chung [22]이 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ICI 검사도구는 총 40문항의 자가 보고식 검사로 이 중 20개 문항은 응답의 편중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정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자기노출, 자각, 피드백의 평가와 수용, 자기표현, 관심 기울이기, 감정처리, 명료성, 회피, 지배성, 차이인정, 수용성의 11가지 의사소통 능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렇다’ 3점, ‘가끔 그렇다’ 1점, ‘아니다’ 0점의 3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Chung [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2.3.3 대인관계

본 연구에서는 Schlein [23]이 개발한 대인관계 변화 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 RCS)를 Ju [24]가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는 총 25문항으로 만족감 4문항, 의사소통 4문항, 신뢰 감 3문항, 친근감 3 문항, 민감성 2 문항, 개방성 5문항, 이해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측정기준은 Likert 5점 척

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함을 의미한다. Ju [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는 기술통계로 산출하였고, 두 집단 간의 동질성 검증은 χ^2 -tes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교과목 운영 후 두 집단 간의 종속변수의 차이는 t-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2.5 연구절차

2.5.1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의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은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의 운영을 이룬 강의식 방식에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활동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기술을 경험하도록 수업 내용에 편성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은 D대학 간호학과 1학년 2학기 전공기초 과목으로 개설되어 3학점 3시간으로 운영된다. 교과목 운영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16주 수업 중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주 1회 100분의 이론 수업과 50분의 프로그램을 14회기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의 구성은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한 선행연구[24]에서의 프로그램의 적용 기간은 최소 2일에서 10 주까지였고, 대상자들의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는 최소 8 주이며 회기 당 소요 시간은 평균 120분으로 보고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자는 이론 수업과 활동 수업의 비중을 고려하여 매 회기 50분씩 14회로 한 학기 동안 편성하여 적용하였다. 한편 프로그램의 내용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18,26,27]를 기초로 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의 적합성에 대한 검정을 위해 임상심리전문가 1인과 상담교육학 전공교수 1인에게 자문을 받고 수정 및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2.5.2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의 실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기이해와 인식을 향상시키며,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적용하여 대인관계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1회기~8회기는 자기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과 관계형성과 증진을 위한 활동을 포함하였으며, 9회기~14회기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편성

하였다. 대상자들의 집단 역동을 촉진하기 위해 소집단은 6~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매 회기 활동에 대한 성찰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조별발표와 동료평가를 성직에 반영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중요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할 것을 설명하고 서면동의서에 받고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매 회기 주제를 제시하고 개별 활동 및 소집단 활동을 격려하는 촉진자 역할을 하였으며 각 조의 토론 결과에 대

<Table 1> Acting Objectives and Contents of the Convergenc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Session	Topic	Contents	Strategies
1	Relationship training for self-understanding	- Orientation of program objects and process - Pretest - Team building (team name, rules, etc.)	- Group activity - Small group activity - Individual activity
2		- Presentation for team building contents - Self-introducing	- Group activity - Small group activity - Individual activity
3		- Experience with others	- Group activity - Individual activity
4		- 'Who am I?' ; Experience self-awareness and self-disclosure - Johari's window	- Group activity - Small group activity - Individual activity
5		- 'Who am I?' : auction value - Find self strengths and weaknesses	- Group activity - Small group activity - Individual activity
6		- Examination of ego-gram and life attitude	- Group activity - Small group activity - Individual activity
7		- Watching : 'Good Will Hunting'	- Group activity
8		- Presentation : famous conversation, impression - Reflection of experience of childhood - Self-understanding report	- Group activity - Small group activity - Individual activity
9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training	- Experience one-way, two-way communication ; drawing shape	- Group activity - Small group activity - Individual activity
10		- Compare effective and ineffective communication - Applying Effective Communication ; listening - Self-assessment of listening ability	- Group activity - Small group activity - Individual activity - Role play
11		- Applying effective communication: empathy, empathy practice	- Group activity - Small group activity - Individual activity - Role play
12		- Applying effective communication: expressing for observing and feelings, and practicing 'I-Message'	- Group activity - Small group activity - Individual activity
13		- Expressing self in a group	- Group activity - Small group activity - Individual activity

한 발표 내용에 대해 전체 집단에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보조원은 매회기 활동 프로그램에서 소집단과 전체 대상자가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매체에 대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회기는 각 조를 편성하고 조원의 역할, 조의 명칭과 규칙을 정하고 조원의 별칭을 짓도록 하였다. 2회기는 조 명칭, 규칙, 조원의 역할을 조별로 발표하도록 하고 별칭으로 자기 소개하기를 진행하였다. 3회기는 전체 학생들이 두 개의 원으로 겹치도록 서서 지시에 따라 움직이며 이동하다 구호에 따라 정지하게 되어 만나는 사람과 인사를 나누며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간단히 답하게 하였다. 이후 전체 집단에서 각자의 경험을 발표하고 나누도록 하였다. 4~5회기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자기인식과 자기노출을 경험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이 소중한 여기는 가치와 자신의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개인 활동을 통해 작성된 내용을 소집단에서 발표하고 토론 후 전체 수업에서 발표하도록 진행하였다. 6회기는 자아 상태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태도를 체크하게 하고 강의방법으로 설명하였으며 각 조별로 발표를 희망하

는 학생 1명씩 자신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였다. 7~8회기는 영화 ‘굿 윌 헌팅’을 시청하게 한 후 의미 있는 대사, 소감 등을 발표하게 하고 어린 시절의 경험이 현재의 성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토론하게 하였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고 성찰하도록 하기 위해 자기이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9회기는 의사소통의 일방통행과 쌍방통행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도형 그리기’를 하도록 하였고, 10회기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과 비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의 사례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역할극을 통해 차이를 비교하여 선택하게 하였고, 2인 1조 짝을 지워 ‘경청하기’ 경험을 진행하고 경청능력에 대한 자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11회기는 ‘공감하기’를 경험하도록 설정된 상황을 제시하여 답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다. 12회기는 관찰과 느낌을 표현하고 ‘나 전달법’을 연습하게 하고 발표하도록 하였다. 13회기는 문제해결을 위한 주제를 주고 집단에서 토론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다. 14회기는 전체 프로그램과 강의 수업을 통합하여 소집단에서 마인드맵(mind mapping) 작업을 하고 발표하도록 하였으며 사후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Table 1>.

<Table 2> Homogeneity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83)

Variables	Categories	n (%) or Mean±SD		χ^2 or <i>t</i>	<i>p</i>
		Exp. (n=41)	Cont. (n=42)		
Sex	Male	3 (7.5)	5 (11.9)	.451	.713*
	Female	37 (92.5)	38 (88.1)		
Age (year)	≤25	32 (78.0)	32 (76.2)	.069	.794
	26-32	9 (22.0)	10 (23.8)		
Communication self-efficacy		36.19±2.02	35.76±1.69	1.06	.293
Interpersonal communication		68.56±2.98	67.83±3.70	.98	.327
Interpersonal relation		78.61±3.39	79.02±3.72	-.53	.598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Fisher’s exact test

<Table 3> Comparison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after Treatment (N=83)

Variables	Groups	Mean±SD			<i>t</i> ^b	<i>p</i>
		Pre-test	Post-test	Difference		
Communication self-efficacy	Exp. (n=41)	36.19±2.02	46.36±3.23	10.17±3.37	15.23***	.000
	Cont. (n=42)	35.76±1.69	37.23±1.62	1.23±1.66		
Interpersonal communication	Exp. (n=41)	68.56±2.98	83.90±5.14	15.34±5.07	11.42***	.000
	Cont. (n=42)	67.83±3.70	71.35±4.44	3.52±4.32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변수의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험군에서 남학생이 7.5%, 여학생이 92.5%이며 대조군은 남학생이 11.9%, 여학생이 88.1%로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은 실험군의 경우 25세 이하 78.0%, 26-31세 22.0%이며, 대조군은 25세 이하 76.2%, 26-31세 23.8%로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대상자의 동질성 검증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에 대한 동질성 검증 결과 집단 활동 프로그램 실시 전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평균점수는 실험군(36.19점)이 대조군(35.76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06, p=.293$). 의사소통 능력 평균점수는 실험군(68.56점)이 대조군(67.83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t=.987, p=.327$), 대인관계 평균점수는 실험군(78.61점)이 대조군(79.02점)보다 낮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t=-.530, p=.598$). 따라서 두 집단 간의 성별, 연령,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 등에서 동질성이 확인되었다<Table 2>.

3.2 대상자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의 차이 검증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따른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는 실험군이 프로그램 실시 전 36.19점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46.36점이었고, 대조군이 35.76점에서 37.23점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5.23, p<.001$). 의사소통 능력 평균 점수는 실험군이 프로그램 실시 전 68.56점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83.90점이었고, 대조군이 67.83점에서 71.35점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의사소통 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1.42, p<.001$). 대인관계 평균 점수는 실험군이 프로그램 실시 전 78.61점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90.41점이었고, 대조군이 79.02점에서 80.92점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대인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9.24, p<.001$)<Table 3>.

4. 논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 간호대학생의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목 운영과 수업설계 개선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ong [28]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향상된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소집단 역동을 이용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었던 Won과 Shin [18]의 결과와 유사하였고, Ju [24]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체 10회기를 주 2회씩 5주간 매 회기 90분에서 120분간 시행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한편 소수 집단들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 표준화 환자 실습 등으로 구성된 의사소통 능력증진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의사소통의 중요성 인식 및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Oh [29]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에서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교과목 운영기간 동안 집단 활동과 조별발표, 토론 등을 통해 활발한 의사소통 과정을 경험하고, 6회기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실제적으로 훈련하면서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간호사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불안 정도가 낮고 교육 수준과 임상 경력이 많을수록 높았으며, 의사소통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3], 특히 시뮬레이션이나 역할극 등으로 다양한 임상상황을 설정한 의사소통 훈련이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과 의료팀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9,30].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향후 임상실습 과정과 졸업 후 간호 실무에 있어 치료적 관계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자기효능

감 향상을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함양하고 대인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반복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한 Seo [31]의 결과 및 의사소통 훈련을 실시한 많은 선행연구[26-28]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는 자기이해 증진을 위한 인간관계 훈련을 기초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훈련을 점진적으로 구성한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과정에서 동료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개방하고 타인을 수용하는 경험을 하여 대인관계가 증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집단을 이용하여 8회기의 집단 상담방식으로 운영한 연구[26,31]와 6회기의 의사소통 기술 중심의 프로그램을 임상실습 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 연구[26]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가 향상된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Parry [32]와 Mullan, Koth [33]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참여하여 경험하게 하는 활동 중심의 운영방식이 효과적임을 제시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소집단 및 집단 활동을 병행한 의사소통 기술 훈련은 대인관계 증진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은 자기이해 증진을 위한 인간관계 훈련과 의사소통 기술 훈련을 실시하였다. 반면 다수의 선행연구[18,19,30,31]는 인간관계 훈련으로 구성하였고, 의사소통 기술을 중점으로 다룬 점에서 본 연구와의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는 인간관계 훈련과 의사소통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간관계 훈련과 의사소통 기술 훈련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오늘날 간호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분야 간 협력관계와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위해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에서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은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교육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은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은 이론 중심의 강의식 수업과 실제적인 훈련과 활동으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저학년 시기에는 자기이해와 인식을 기반으로 실제적인 경험과 훈련이 가능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운영하고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고학년에서는 간호현장을 반영한 단계적인 의사소통 능력 함양 교육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문제를 다루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임상에서의 사례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여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넷째, 본 연구는 일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을 고려하여 추후 대상자 확대 및 교과과정 특성 등을 고려한 반복연구와 학년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N. S. Ha, J. Choi, "An analysis of nursing competency affecting on job satisfaction and nursing performance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6, No. 3, pp.286-294, 2010.
- [2] B. H. Park, "Evaluation of policy related to expansion of hospital nurses", Master's thesis,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2.
- [3]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Workshop for outcome based curriculum operating, 2012. Available From : <http://www.kabone.or.kr/Hy>

- Admin/upload/goodFile/120121127132143.pdf (accessed Jan., 9, 2017)
- [4] K. S. Lee, E. O. Choi, J. S. Jeong, "Survey of curriculum for 4 subjects (structure and function of body, clinical microbiology, pathophysiology, & mechanism and effect of drugs) of biological nursing in undergraduate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Vol. 16, No. 1, pp.17-25, 2014.
DOI: <http://dx.doi.org/10.7586/jkbns.2014.16.1.17>
- [5] H. S. Kim, W. J. Park, T. H. Ha, "The effects of education of communication on perceptual orientation, self-efficacy,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Vol. 10, pp.95-111, 2006
- [6] S. A. Kim, J. H. Park, H. H. Lee,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comprehensive communication cours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4, No.3, pp.412-420, 2004.
- [7] M. H. Kim, J. R. Chun, S. A. Hong, "Factors of family function and self-efficacy influencing old patient's decision of advance directives attitude,"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6, No. 4, pp.123-129, 2016.
- [8] S. Y. Kim,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stress in their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decision attitude,"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6, No. 4, pp.115-122, 2016.
- [9] H. S. Ko, "A Study on the for convergence teaching-learning plan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bility",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Vol. 51, No. 2, pp.223-250, 2016.
DOI: <http://dx.doi.org/10.20880/kler.2016.51.2.223>
- [10] J. W. Jung, "A study on the effect of a yungbokhap education program based on problem-based learn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5, No. 3, pp.307-331, 2015.
- [11] Park, I. W., "Premature introduction of convergent education and its solution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0, No. 1, pp.349-378, 2016.
- [12] C. H. Woo, "The preference of instructional methods and kolb's learning styl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0, pp.339-348, 2016.
DOI:<http://dx.doi.org/10.14400/JDC.2016.14.10.339>
- [13] S. Y. Jeong, C. H. Kim, "Comparing the ethical knowledge, ethical values and class satisfaction by students' cognitive style to develop the convergent nursing ethic cla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1, pp.205-216, 2015.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5.13.11.205>
- [14] H. Y. Koo, H. S. Im,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between associate and bachelor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3, No. 1, pp.311-321,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1.311>
- [15] J. W. Park, M. S. Choi, "A study on self consciousnes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8, No. 3, pp.351-360, 2009.
- [16] H. S. Lee, "A convergence study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parent-son/daughter communication on addiction to smartphones : focused on the mediated effect of stress level, self-control and self-efficac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4, pp.163-172, 2016.
- [17] K. M. Lee, C. H. Bum, "A convergenc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golf major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3, pp.265-273, 2017.
- [18] J. S. Won, H. S. Shin, "The effect of small group based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the competency of communication and the human relationship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4, No. 2, pp.60-66, 2008.
- [19] S. A. Kim, N. R. Han, J. H. Park, M. J. Kim, H. L. Kim, "Application and evaluation of small group and music activity in a communication course",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9, No. 3, pp.307-317, 2010.
- [20] H. W. Ayres, "Factors related to motivation to learn and motivation to transfer learning in a nursing popul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2005.
- [21] M. Bienvenu, "A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ventory",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21, pp.381-388, 1971.
- [22] S. H. Chung, "A study on the TA program development and effect on communication skills dental hygienist",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 6, No. 4, pp.295-302, 2006.
- [23] S. Shiei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71.
- [24] J. S. Ju, "The effects of th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communication and human relationship",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5.
- [25] I. P. Kruijver, A. Kerkstra, A. L. Franche, J. M. Bensing, H. B. Wiel, "Evaluation of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s in nursing care: a review of literature". Patient Education Counseling, Vol. 39, pp.129-145, 2000
- [26] E. J. Song, "The effects of a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student nurses in clinical practic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3, No. 3, pp.467-473, 2006.
- [27] K. A. Shin, E. S. Lee, "The effects of a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2, pp.149-158, 2011.
- [28] E. J. Bo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curriculum were utilized group activit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3 No. 10, pp.394-402, 2013.
-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10.394>
- [29] I. A. Kang, H. M. Lee, "A case study of PBL in a college general art clas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11, pp.635-657, 2015.
DOI:<http://dx.doi.org/10.5392/JKCA.2015.15.11.635>
- [30] E. R. O'Shea, M. Pagano, S. H. Campbell, G. Caso, "A descriptive analysis of nursing student communication behaviors", Clinical Simulation in Nursing, Vol. 9, No. 1, pp.5-12, 2013.
- [31] H. S. Seo, "The effect of self-growth group counseling on interpersonal relation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an Society for Youth Protection and Guidance, Vol. 7, pp. 35-56, 2005.
- [32] R. Parry, "Are interventions to enhance communication performance in allied health professionals effective, and how should they be delivered? direct and indirect evidence",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ling, Vol. 73, No. 2, pp.186-195, 2008.
- [33] B. A. Mullan, E. J. Kothe, "Evaluating a nursing communication skills training course: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related ability, satisfaction, and actual performanc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 10, No. 6, pp.374-378, 2010.

정 추 영(Jeong, Chu Young)



- 2014년 8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인간관계론, 정신건강
- E-Mail : jcy0902@dhc.ac.kr

서 영 숙(Seo, Young Sook)



- 2011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만성질환
- E-Mail : seol657@naver.com